

2021년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 및 특징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오세진 (ohsejin@kdb.co.kr)

- ◆ 2021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으며,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에 대한 투자의존도가 높아짐
- ◆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균형있는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, 이를 위해 기존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, 중견·중소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

* 본 보고서는 '2021년 설비투자계획조사'에 기반하여 작성

□ 2021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11.2%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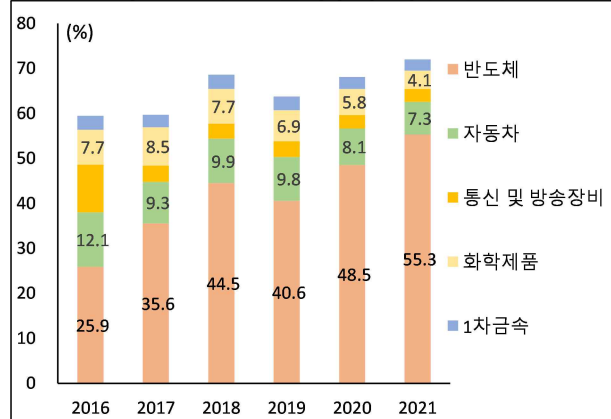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반도체 투자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
 - 반도체 업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6.7%로 주요 제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, 전기장비 14.6%, 식료품 11.1%, 1차금속 2.6% 증가
 - 화학제품 △20.9%, 석유정제 △12.3%, 기계장비 △10.7% 등은 감소
- 전체 제조업 설비투자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투자 비중은 2021년 절반 이상까지 확대
 - 제조업 투자에서 반도체 업종 비중은 2021년 55.3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 25.9%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
 - 이에 반해 제조업에서 자동차, 화학제품의 국내 설비투자 비중은 감소 추세

주요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

	2017	2018	2019	2020	2021
제조업	20.7	-11.2	-5.0	0.7	11.2
반도체	65.8	11.2	-13.4	20.5	26.7
전기장비	0.8	4.2	65.3	-10.1	14.6
식료품	16.4	-6.0	22.2	-6.6	11.1
1차금속	7.8	0.0	-7.5	-11.9	2.6
자동차	-7.9	-5.2	-6.2	-16.6	0.2
기계장비	-18.2	-17.6	0.7	18.9	-10.7
석유정제	101.6	-2.3	-14.7	6.1	-12.3
화학제품	33.6	-19.5	-15.4	-15.6	-20.9

주 : 당해년 명목금액 증가율
자료 : 한국산업은행

주요 업종별 설비투자 비중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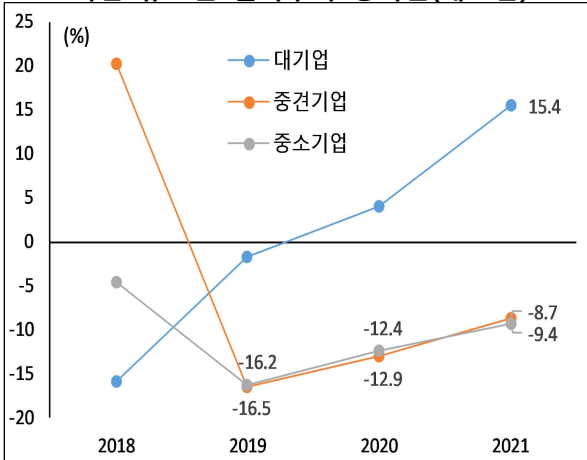


주 : 당해년 명목금액 증가율
자료 : 한국산업은행

□ 2021년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기업규모별로 나눠보면 대기업과 중소·중견 기업간 투자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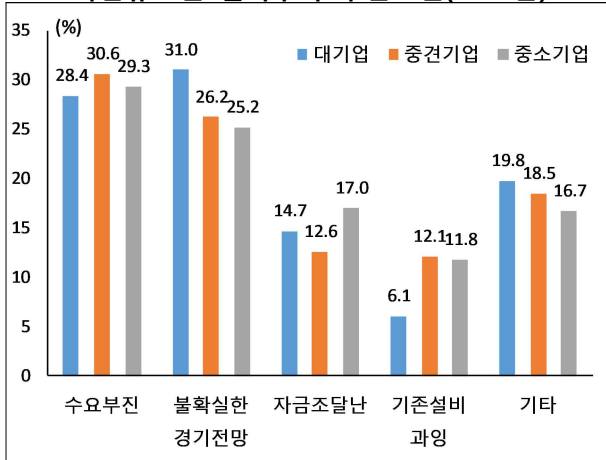
- 2021년 대기업 설비투자는 15.4% 증가한데 반해, 중견기업은 △8.7%, 중소기업 △9.4% 감소
 - 중소·중견기업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
-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부진요인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, 중견·중소기업은 수요부진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응답
 - 중소·중견기업은 만성적인 수요부진으로 인하여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기업 규모별 설비투자 증가율(제조업)



자료 : 한국산업은행

기업규모별 설비투자 부진요인(2021년)



자료 : 한국산업은행

□ 우리나라는 업종간, 기업규모간 투자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,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균형있는 투자 확대가 필요

- 특정 업종에 대한 지나친 투자 편중은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, 중소·중견기업의 투자 위축은 제조업의 대외의존도를 높여 체질 약화를 야기할 수 있음
-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전통산업은 고도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며, 중소·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등의 제도적 지원과 자금지원을 통해 설비투자를 촉진해 나갈 필요